

야구중계를 보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결국 “언제 시작하지?” 문제예요. 특히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KST로 통일해서 보고 싶은데, KBO는 국내 편성이라 그나마 수월한 편이고 MLB는 미국 동부시간(ET) 기준으로 안내가 붙는 경우가 많아서 더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경기 시작 직전에 “아 오늘은 벌써 시작했네?” 같은 실수를 몇 번 했고, 그 뒤로는 아예 KST 기준으로 고정 루틴을 만들어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그 루틴을 그대로 풀어쓴 느낌으로, 야구중계 시간을 KST로 정리하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볼게요.

그리고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사이트 같은 키워드도 같이 엮을 건데요, 중요한 건 결국 어떤 사이트든 “시간이 맞는지”를 최종 검증하는 습관이에요. 사이트는 편하지만, 마지막 1번은 공식 일정 쪽으로 확인하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KST로 보는 이유, 숫자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져요

KST는 UTC보다 9시간 빠르고, ET보다 14시간 빠릅니다. 이 한 줄이 사실 핵심이에요. MLB 중계 시간 안내가 ET 기준으로 붙는 순간, 한국에서는 자동으로 “14시간 당겨서” 생각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ET가 오후 7시면 KST는 다음 날 오전 9시가 됩니다. 반대로 ET가 오전 11시면 KST는 같은 날 밤 1시쯤이에요. 여기까지는 계산이 쉬운데, 문제는 날짜가 같이 넘어가는 경우예요. [mlb중계 보는곳](#) MLB는 시즌 내내 경기가 매일 열리고, ET 기준으로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 자주 걸리다 보니, “한국 날짜로 오늘 경기 맞아?”를 놓치기 쉽거든요.

KBO는 기본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고(정규 편성 기준으로 평일 18:30, 주말·공휴일 14:00 또는 17:00 등), 실제로는 공지에 따라 조정이 생길 수 있어요. 즉 KBO는 “기본값”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MLB는 계산 자체가 습관 없으면 헷갈릴 확률이 더 커요.

KBO는 기본 시작 시간이 있지만, 공지 조정까지 같이 봐야 해요

KBO는 정규 편성 기준으로 평일 18:30, 주말·공휴일 14:00 또는 17:00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실제 경기 시간은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O는 노동절 경기에서 18:30에서 17:00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고, 폭염 같은 기상 사유로도 개시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야구중계를 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충 7시쯤이겠지” 같은 감으로 보면 틀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직장인이라 퇴근 시간 맞춰 보려는 날, 주말 일정에 맞추려는 날, 더블헤더가 끼는 날이면 체감 오차가 큼니다.

또 우천 취소 경기는 재편성이 생기는데, 9월 15일 이후 더블헤더 구성도 시작 시간이 다르게 잡혀 있어요. 더블헤더 1차전은 평일 15:00, 주말·공휴일 14:00, 2차전은 평일 18:30, 주말·공휴일 17:00에 시작하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런 건 “원래 편성 시간”이랑 다르게 돌아가니까, KBO도 최종 확인을 공식 일정에서 해주는 게 안전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덧붙이면, KBO는 한국 시각 기준으로 이미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ET 같은 시차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신 “시간 변경 공지”를 놓치면 KST 기준이라고 해도 결국 틀린 시작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KBO는 계산보다 확인이 우선이고, MLB는 확인과 계산을 같이 해야 하는 구조라고 보면 편해요.

MLB는 ET 기준 안내가 많아서, KST 계산을 ‘날짜까지’ 챙겨야 해요

MLB 2026 정규시즌은 162경기 체제로 운영되고, 개막은 Opening Night 형태로 3월 25일이었고 전통적인 Opening Day는 3월 26일이었습니다. 올스타전은 7월 14일에 열렸고요. 이런 시즌 전체 큰 흐름은 참고용이고, 실제 야구중계 시간 안내에서는 “당일 경기의 시작 시간”이 더 중요하죠.

MLB 중계 안내가 ET 기준으로 붙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KST로 바꿀 때는 시간뿐 아니라 날짜 변화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KST는 ET보다 14시간 빠르니까, ET 날짜가 한국에서 전후로 하루가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ET가 밤 9시라면 한국은 다음 날 오전 11시쯤이 되고, ET가 새벽 1시라면 한국은 같은 날 오후 3시쯤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한 번 겪으면 “아 날짜도 같이 옮겨야 하는구나”가 머리에 딱 고정돼요.

제가 제일 많이 실수했던 유형은 이거예요. “한국 날짜로 오늘이니까 ET로도 오늘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ET가 한국에서 하루 전이나 하루 뒤로 밀린 상황이었던 거죠. 그날은 경기 시작을 딱 놓쳤고, 그 뒤로는 KST 기준으로 날짜가 바뀌는지 확인하는 칸을 머릿속에 추가했습니다.

이제는 야구중계사이트에서 편한 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공식 일정에서 ET 시간을 확인해서 KST로 바꿔보는 방식으로 안정감을 찾았어요.

“야구중계사이트”를 쓰되, 최종 검증은 공식 일정에서

야구중계를 보다 보면 야구중계사이트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한 화면에서 KBO와 MLB를 같이 보거나, 선발투수나 중계 채널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주는 페이지가 많거든요. 검색하고 바로 들어가도 되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트들은 편의성은 좋아도, 업데이트 타이밍이나 표기 방식이 제각각일 때가 있어요. 특히 KBO는 공지로 시작 시간이 바뀌는 일이 있고, MLB도 중계 관련 안내가 업데이트되면 표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 번을 “공식 일정 검증”으로 잡았습니다.

KBO 공식 일별 일정 페이지는 날짜별 경기 시간, 중계 TV, 구장,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본 시간과 대조하기에 딱 좋아요. MLB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별 경기와 시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Where to watch” 같은 안내로 중계 확인을 도와주는 구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야구중계사이트는 빠르게 훑고, 시작 시간만큼은 공식 일정에서 다시 확인해서 오차를 줄이기.

KST 변환을 “한 번에” 끝내는 방법 (날짜 포함)

여기부터는 실제로 손에 익혀두면 좋아요. MLB는 ET 기준이 많으니 KST 변환 루틴을 만들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덜 헤매거든요. 아래는 제가 쓰는 방식인데, 복잡한 공식을 외우기보다 “14시간 당김”을 기본값으로 두고, 날짜만 체크하는 흐름이에요.

1. MLB 안내가 ET 기준인지 먼저 확인한다.
2. ET 시간을 그대로 보고 “KST는 ET보다 14시간 빠르다”를 적용한다.
3. 계산 결과에서 시간이 24시간을 넘기면, 한국 날짜를 다음 날로 넘긴다.
4. 반대로 계산 결과가 0시 미만으로 내려가면 한국 날짜를 전날로 넘긴다.
5. 최종적으로 KST의 날짜가 “내가 보고 싶은 한국 날짜”와 일치하는지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한다.

이 5단계를 한 번만 해도 실수가 확 줄었어요. 특히 더블헤더나 우천 취소 재편성이 있는 날에는, KBO도 시간이 바뀌는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같이 가져가야 하고요.

KBO와 MLB를 한 페이지에서 같이 볼 때 생기는 함정들

KBO는 정규 편성 기준 시작 시간이 있고, 공지로 조정될 수 있으며, 우천 취소나 더블헤더 재편성도 존재합니다. MLB는 ET 기준 안내가 많고, 시차로 인해 날짜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구중계사이트에서 KBO와 MLB를 같이 정리해 보여줄 때, 보기에 편한 대신 함정도 있어요.

첫째, KBO는 KST 기준으로 표시하는데 MLB는 ET 또는 KST를 섞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화면인데도 시간 표기가 다르면, 결국 사용자가 머리로 필터링해야 하니까 피곤해집니다.

둘째, “같은 한국 날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MLB는 KST로 바꿨을 때 실제 경기가 한국 날짜의 전날이나 다음날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이트가 한국 시간을 잘 맞춰서 보여주면 상관없지만, 만약 표기 기준이 애매하면 시작 시간을 놓치기 쉽죠.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끝내려는 욕심을 줄이고, “KBO는 공식 일정으로 시간 확정, MLB는 KST 변환으로 날짜와 시간 확정”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합니다. 번거로운 것 같아도, 결국 한 경기만 놓치면 그날 잃는 시간과 스트레스가 더 커져서 장기적으로 이득이더라고요.

예시로 한 번 감 잡아보기: 같은 한국 날짜라도 방식은 달라요

가정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날에 KBO는 평일 기준 기본 시작이 18:30인 라인이 있다고 치죠. 실제로는 공지로 17:00으로 바뀐 적이 있으니, 그날이 “공지 변경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KST가 이미 한국 시간 기준이라 계산은 필요 없고, 변경 여부만 잡으면 돼요.

반면 MLB는 “ET로 19:00” 같은 안내가 붙으면 그걸 KST로 바꿔야 합니다. ET 19:00이면 KST는 14시간 빠르니까 다음 날 오전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이때 한국 날짜가 바뀐다는 사실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순간부터, 야구중계 시간 안내를 볼 때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게 돼요. 특히 밤 경기로 넘어가는 날에는 이 습관이 더 빛나고요.

선발투수랑 중계채널까지 같이 볼 때는 “시간이 먼저”예요

야구중계를 보다 보면 무료 mlb중계 선발투수 확인도 중요하죠. 하지만 시간을 놓치면 선발투수고 뭐고 전부 소용이 없어요.

KBO 공식 일별 일정 페이지는 경기 시간과 중계 TV, 구장과 결과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MLB도 공식 일정에서 날짜별 경기와 시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Where to watch 안내가 붙는다고 정리돼 있어요. 결국 이 둘을 한 번씩만 맞춰보면, 야구중계사이트를 통해 찾은 정보가 “내 화면에서 맞는 타이밍”인지 확인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선발투수와 대략적인 분위기를 보고, 공식 일정에서 시작 시간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그 뒤에 따라오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 과부하도 줄고, 무엇보다 경기 시작을 놓칠 확률이 확 낮아져요.

결국 정리는 이렇게: KBO는 공지, MLB는 시차, 그리고 최종은 공식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래요. KBO는 기본 시작 시간이 있어도 공지로 흔들릴 수 있고, MLB는 ET 기준 안내가 많아서 KST로 날짜까지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찾는 도구”는 야구중계사이트로 충분하지만, 시작 시간은 공식 일정으로 최종 확정하는 쪽이 실수를 덜 만들어요.

정리해두면 마음이 편해지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KBO는 우천 취소로 더블헤더 편성이 생길 수 있고, 더블헤더 1차와 2차의 시작 시간이 평일과 주말 기준으로 다르게 안내돼요. MLB는 162경기 체제라 매일 변동이 누적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오늘 내가 보는 날짜의 KST가 맞는지”를 매번 재확인하는 게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느낌의 질문들, 실전에서 바로 쓰는 답

야구중계, mlb중계로 검색하다 보면 비슷한 걱정이 반복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KST로 적혀 있으면 다 맞는 거 아니가요?” 같은 질문이요. KST로 적혀 보이더라도, 사이트 표기 기준이 ET를 그대로 둔 것인지, 한국 시간으로 바뀌었는지까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또 “KBO도 시차 계산해야 하나요?”는 보통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KBO는 한국에서 열리고 일정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안내되는 구조가 기본이라, 계산보다는 공지 변경이나 재편성 여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선발투수 보기 전에 시간이 확정돼야 하나요?” 이걸 거의 그렇다고 생각해요. 선발투수 정보는 틀려도 아쉬운 정도지만, 시작 시간을 놓치면 경기를 통째로 날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멋있게 정리된 화면을 보는 순간에도, 본능처럼 시간부터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야구중계 시간 안내를 ‘습관’으로 만들면 덜 헤매요

저는 예전에는 경기 시작 30분 전에 들어가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꼭 한 번은 늦게 들어가요. 공지 변경이 있었거나, 더블헤더 순서가 뒤바뀌었거나, MLB는 ET와 한국 날짜가 어긋났거나, 이런 변수들이 쌓이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KST 기준으로 “확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즐기기”로 넘어가요. KBO는 공식 일별 일정으로 시간과 중계 정보를 맞춰보고, MLB는 ET 기준에서 KST로 14시간 변환을 하면서 날짜까지 확인합니다. 이 루틴은 번거로운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시간 낭비를 줄여요.

야구중계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결국 화면보다 기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보기 편한 정보를 얻되, 시작 시간만큼은 확실히. 그게 제가 지금까지 안 틀리고 보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